

#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쓰기 문항 연구

김 선 옥  
(아주대학교)

## 1. 서론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의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의 이해 및 유학 등 학술적 성격에 필요한 한국어와 일상생활 및 한국 기업체의 취업에 필요한 한국어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 평가하여 국내외 대학으로의 유학, 기업체 취업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서 밝힌 쓰기 영역의 평가 기준과 내용을 보면, 적절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맥락과 격식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일관성 있고 조리 있게 담화를 구성하는 능력과 한국어 담화 구조에 맞는 담화 구성 능력 등을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다<sup>1)</sup>.

송아라(2014)에 따르면,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한류의 열풍이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를 가져와 한국어 학습기관이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

---

1)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www.한국어능력시험.go.kr](http://www.한국어능력시험.go.kr)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서 밝힌 쓰기 영역 작문 문항 평가 범주를 살펴보면 내용 및 과제 수행(과제수행 여부, 관련내용으로 구성, 내용표현의 다양성), 글의 전개구조(구성의 논리성, 단락구성, 담화표지를 이용한 조직적인 논리전개 여부), 언어사용(문법과 어휘의 적절성, 정확성, 목적과 기능에 부합여부) 측면 등 3가지 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교포나 한인 2, 3세를 넘어서 순수한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로써 한국어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한국어를 현지화 하는 것에 대해서 현지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의 활용 목적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기에, 그 동안의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고급 단계의 쓰기 시험이 취지에 맞게 출제 되어왔는지 확인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출제방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Langer(1986)는 학습자는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문화적인 주제에 대해 글을 쓸 때에 그 주제에 관해서 완전히 문제를 이해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Ruth & Murphy(1988)도 학습자의 쓰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쓰기 과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쓰기 과제의 주제가 적절치 않거나, 학습자에게 맞지 않은 수사적 표현의 사용은 결국 학습자의 글쓰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Brown(2001)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통해 익힌 방식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외국어로 쓴 글에 대한 평가는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TOEFL<sup>2)</sup>이나 IELTS<sup>3)</sup>에서는 수험생이

2) [http://www.ets.org/toefl/ibt/prepare/sample\\_questions](http://www.ets.org/toefl/ibt/prepare/sample_questions) :

You will demonstrate your ability to write an essay in response to a question that asks you to express and support your opinion about a topic or issue. Your essay will be scored on the quality of your writing. This includes the development of your ideas, the organization of your essay, and the quality and accuracy of the language you use to express your ideas.

**Question:**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A teacher's ability to relate well with students is more important than excellent knowledge of the subject being taught.**

196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TOEFL 시험의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쓰기 시험인 TWE (Test of Written English)의 185개의 Topic list의 주제를 보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친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학교, 수업, 공부에 관한 내용이 30개이고, 주변인들과 그들의 성격에 대한 문항이 21개, 나머지도 직업과 취미, 가치관, 주변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다.

3) <http://www.ielts.org>

쉽게 유추 할 수 있는 주제를 출제하고 있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수험생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쓸 수 있도록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쓰기 능력 시험 출제나 평가 또한 Brown(2001)이 주장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영역 고급(6급) 작문형(essay) 쓰기 문제들을 보면, 수험생이 한국의 사회, 문화적 현상의 배경지식을 알고 있을 때에 보다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을 제시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문항의 출제 취지에서 밝혔듯이,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 견해를 얼마나 조리 있게 표현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한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것은 수험자가 한국어의 쓰기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국의 사회문화적 지식이 한국어 쓰기능력에 영향을 준 결과를 평가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한국어능력시험의 작문 문제유형에서도, 수험생의 창의성을 막는 예시문장, 제시어가 제공되는 제한된 글쓰기 형식이 아닌 Brown(2004)이 제시한 학문적 쓰기 과제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기술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의 형태로 수험생이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기술하는 문제 유형 출제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능력시험이 외국인 수험생의 한국어 작문 실력을 온당하게 평가하기에 타당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수험생의 쓰기 능력을 제한하는 문제들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고, 왜 그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물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문제들의 출제 방향에 대한 제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지

---

#### ACADEMIC WRITING SAMPLE

Write about the following topic: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maintains world peace. Nuclear power provides cheap and clean energy. The benefits of nuclear technology far outweigh the disadvantages.**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Give reasons for your answer and include any relevant examples from your knowledge or experience. write at least 250 words.

급까지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출제경향에 대한 의견제시에 그쳤을 뿐, 본 연구에서처럼 쓰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없었다.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문항 구성은 객관식 10문항(40점), 주관식 3문항(30점), 작문형 1문항(3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급(6급) 단계에서 영역별로 50점 미만이면 과락이고 70점 이상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sup>4)</sup> 작문형 문항은 쓰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배점이 높아(30점) 시험당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중 상당수가 작문형 쓰기 영역의 점수를 얻지 못해 고급 단계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은희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고급(6급) 쓰기 영역 중에서 작문형 쓰기 기출문제와 모범답안, 2회부터 35회<sup>5)</sup>까지, 총 34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후, 이들의 특징들을 찾아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37회 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기출문제는 게재되지 않고 모범답안만 게재되어 있어 36회와 37회는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본 논문은 2절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선행연구가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져왔는지를 살펴보고, 3절에서는 작문형 쓰기 기출문제와 모범답안의 출제 경향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4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연구를 정리

4) 2014년 7월부터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시험과목, 문제유형, 과락제도의 문제점이 대폭 수정되었다. 현행 3종 6급 체계에서 한국어능력시험I(1~2급, 초급: 읽기, 듣기)과 한국어능력시험II(3~6급, 중, 고급: 읽기, 듣기, 쓰기), 2종 6급 체계로 개편되었다. 한국어능력시험I에서는 어휘, 문법 및 쓰기가 제외(시험시간도 현행 180분에서 100분으로, 104문제에서 70문제로 축소)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II에서는 어휘, 문법이 제외되었다(현행 180분 동일). 어휘, 문법영역은 대신에 읽기 영역에서 평가되고, 기존의 간접적인 방식과 병행되던 쓰기 영역이 직접 글쓰기 능력이 평가되도록 한국어능력시험II에서 쓰기 시험이 모두 4문제가 출제된다. 1~2번 문제는 글의 흐름에 맞는 문장을 하나 또는 두 개를 쓰는 것이고, 3~4번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글쓰기와 논리적 쓰기 방식이다. 기존 국내의 총4회 시행해오던 시험 횟수를 국내3회, 국내외 2회 등 총 5회로 확대 시행하고, 2015년 이후에는 6회 실시 예정으로 있다.

5) 35회는 6급이 아닌 TOPIK I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여 앞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출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지금까지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와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쓰기 영역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이 주로 문항수가 많이 출제되는 객관식과 빈칸 채우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주관식문항을 늘려야 한다거나, 주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정도의 문제 제기에 그치고 있고, 주관식 쓰기 문제의 주제와 형식이 수험생의 한국어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한 논문은 없다.

한국어능력시험 쓰기에 대한 논문에는 김태은(2008), 이인희(2009), 양길석,민경석,박정진(2012), 서수현(2013), 김원경(2013), 김현진(2013) 등이 있다. 김태은(2008)은 서술형 문제의 출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장르의 쓰기 문제 출제와 한국문화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글을 문제로 출제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한국문화의 특징을 포함하는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험문제는 수험생의 한국어 실력을 보고자 하는 시험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주장이다. 이인희(2009)는 영역 간, 등급별 간의 문제들이 차별성이 별로 없이 출제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고급 작문 문제의 경우 주제를 뒷받침하는 제시어를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오히려 수험자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김원경(2013)은 작문형 쓰기 문항이 개인적인 경험 이상의 선행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그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밝히고, 일정수준 이상의 선행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수현(2013)은 수험자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쉽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뚜렷한

목적은 수반한 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진(2013)은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상당수 학생들이 다른 영역의 성적이 좋아도 배점이 가장 높은 쓰기문항에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서 고급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밝히며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의 시험 결과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험생이 작문형 쓰기문제를 어려워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위의 선행 연구들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작문형 쓰기문항이 수험생의 한국어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한지 알아보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이 새롭게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출제방향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 III. 분석

Brown(2001)은 학습자 자신의 모국어(제1언어)로 글을 쓰는 것과 외국어(제2언어)로 글을 쓰는 차이를 구분 지었는데, 제2언어로 글을 쓰는 외국인 학습자의 특징으로 모국어에 의한 교육 경험으로 인해 모국어에서와 같은 주제적 또는 스키마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sup>6)</sup>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제2언어 학술작문의 수사학적 전통이 모국어의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2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때 낯설게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제2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제2언어로 글을 쓰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고, 사회문화적이고 언어학적인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준비와 평가에 있어서도 모국어와 제2언어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작문형 쓰기 문제들을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리고 1995년 시작한 한국어능력시험 작문형 쓰기 문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6) 스키마란 새로운 경험이 내면화되고 이해되는 정신의 모델 또는 틀을 가리킨다.

작문형 쓰기 문제에 대해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한국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없는 외국인 수험생이 한국어 쓰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 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한국어로 편안히 펼칠 수 있는 형식의 문제들이 출제 되었는지, 즉, 쓰기 문제에 주어지는 읽기지문, 제시문, 제시어가 주어지는 시험의 형식이 타당한지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약 2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변화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특징들이 수험생의 작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알아 보고자 한다.

## 1. 주제와 내용 분석

### 1) 사회적 시의성을 반영한 문제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출제 당시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양길석, 민경석, 박정진(2012)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쓰기에서는 개인적 경험 이상의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출제 되고 있으며 이는 특정한 지식과 내용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런 배경지식이 없을 경우 쓰기능력 발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고급 단계의 쓰기 문제도 초·중급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이고 친숙한 소재의 문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출제된 시의성을 반영한 문제는 한국의 사회 현실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수험생에게 친숙하지 않은 주제의 작문 쓰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한국어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험생이 처한 나라의 시대적 상황과 사건들은 정말 다양 할 것이므로, 한국사회의 시의성이 포함된 문제는 한국 사회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수험생을 제외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게 펼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다음은 이런 시의성을 반영한 문제들을 통해서, 출제 당시 한국 사회의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고, 그런 문제들이 수험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예이다. 다음 예 (1)는 2004년 8회 57번 문제로 주 5일 근무에 관한 문제이다.

(1)

[57] 다음은 ‘주 5일 근무제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의 개요입니다. 개요 표에서 제시한 장점과 단점 세 가지를 포함하는 글을 쓰십시오.

<p>“주 5일 근무제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p> <p>1) 장점: ① 자기 계발의 기회로 개인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②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③ _____</p> <p>2) 단점: ① 가계 지출이 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② 근무 단축으로 인해 평일 근무가 강화된다.          ③ _____</p>
---

IMF이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의 일환으로 2004년 시행한 주 5일 근무는 한국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그 당시까지는 전 국민이 경제 발전에 모든 가치를 두고 매진했던 삶의 방식이, 주 5일제 근무를 통해 국민의 행복 추구하고 질적인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주 5일제의 여파로 관광, 레저, 외식 등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었고, 여가시간의 증가로 직장 중심 문화에서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로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유발시켰다.

이런 한국 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지식으로 필요로 하는 문제는, 주 5일 근무가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미국은 1938년 도입) 이를 당연시 여기는 국가의 수험생의 경우에는 주 5일 근무의 장점과 단점이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아직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하지 않아서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나라의 수험생인 경우에는 주 5일 근무를 상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사회 변화를 겪어 보지 못한 세대인 지금의 한국 학생들에게도 주 5일 근무에 대한 주제의 글을 써보라고 한다면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의 부재로 작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주어진 예시 문장에서 주어진 ‘주 5일 근무제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장점과 단점이 적절하게 제시된 예문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온 한국인의 입장에서 쉬는 날을 이용하여 자기계발에 투자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주 5일 근무제의 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를 당연히 여기는, 한국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수험생에게는 예문에서 주어진 장점은 충분한 장점이 될 수 없다. 또한 보기 2) 단점에 제시한 것들도 주 5일제 근무가 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근무 단축이 어떻게 평일 근무 강화의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제공하지 않아, 이러한 맥락과 상황을 모르는 응시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글로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음 예(2)는 2008년 14회 45번 문제로 올바른 인터넷 사용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다.

(2)

[45] ‘올바른 인터넷 사용 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 제시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 태도의 예>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여 쓰되, 각각의 태도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의 예를 포함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터넷 사용 태도의 예>

상대방의 인격 존중하기/ 타인의 사생활 보호하기/ 의견차이 인정하기/ 바른 언어 사용하기/ 정확한 정보 올리기

인터넷 사용이 빠르게 보편화 되었던 한국사회에서, 2005년 개똥녀 사건이 해외신문에 보도가 될 정도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 사건을 계기로 네티즌들의 신상 털기, 인터넷 마녀사냥, 악플 등이 한국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었다.<sup>7)</sup> 게다가 인터넷 악성댓글이 연예인의 자살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었고, 급기야 2007년 11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악플 퇴치 선언식을

7) ‘악(惡)’과 영어의 ‘reply’가 합쳐진 말로, ‘악의적인 댓글’ 즉 고의적인 악의가 드러나는 비방성댓글을 가리킨다.

가진 바 있다. 그 후 ‘최진실법’이라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법이 제정되었다.

악성댓글이 특히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이유는 집단주의의 영향을 가진 한국사회의 특성을 들 수 있다.<sup>8)</sup>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 집단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고, 이를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평소애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러한 성향은 심리적 억압으로 작용하여,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세계에서 여과 없이 배출되어 해방감을 느끼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익명성과 집단주의적인 특성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공격적 성향으로 사이버 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악플 피해자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알지 못한다면 문제에서 제안된 올바른 인터넷 사용 태도의 예에 해당하는 제시어를 바탕으로 수험생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며 작문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아래 예 (3)는 2009년 15회 45번 문제로 감시카메라 설치확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라는 문제이다.

(3)

[45] 다음 글을 읽고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할 것. 단, 아래 제시된 각 입장의 논거 중 두 개 이상을 제시할 것)

최근 들어 각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감시 카메라 설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감시 카메라는 은행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설치 장소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 카메라 설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사회 안전 유지/ 범죄 예방/ 인권보다 공익이 우선

<반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범죄 예방의 효과 불분명/ 가해자의 인권 보호

8) ET. Hall의 저서 *Beyond Culture*에서 언급하듯이, 고맥락사회에서 집단주의적인 문화적 성향은 독립된 개인의 가치나 의미보다 하나 된 전체사회로서의 “내집단”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 고맥락사회인 한국에서의 악플은 사이버 상에서 나오는 다른 “외집단”에게 드러내는 배타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2009년 1월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여대생을 납치하는 장면이 CCTV에 잡히면서,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CCTV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강남구를 중심으로 도로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다. 범죄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많은 지방자치 단체가 감시카메라를 골목마다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고, 한편에서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반대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감시카메라에 대한 찬반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문제는 이미 감시 카메라 사용이 보편화되었거나, 감시 카메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나라의 수험생들에게는 적절한 질문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1824년 처음으로 영국에서 CCTV가 설치되었는데, 만약 당시 우리나라학생에게 시험에서 CCTV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면 CCTV가 무엇인지 몰라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사회의 쟁점을 다루고 있는 문제는 기부 필요성(2007년 11회)과 창의적 사고 능력(2011년 22회)에 대한 문제가 있다. 출제 배경을 보면 2006년 6월 위렌 버핏이 자신의 재산 중 85%에 해당하는 370억 달러를 빌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하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된 이후, 기부에 인색한 혈연중심의 한국사회에서 기부문화를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던 시기에 출제된 문제이다. 또한 현대사회에 창의적 사고 능력의 필요성 문제(2011년 22회)가 출제된 시간적 배경을 보면, 기술과 인문학의 접목을 강조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아이패드의 선풍적 인기와 더불어 인문학적 창의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이명박 정부가 7차(2009) 및 7.1차(2011) 교육과정에서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였던 것과 시기를 함께 한다.

## 2)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 문제9)

- 
- 9) 각각의 사회는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는 그들의 행동양식을 정해주는 사회적 정의나 틀이 존재하는데 이를 사회구조라고 한다. 한 사회를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요소들 즉, 신분, 계급, 가족, 사회조직, 종교 등 각 구성요소를 알아야 하는데 한국사회 구조의 특징으로는 유교적 이념의 세계관, 지역주의, 학력주의, 고성장 패러다임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적 특수성을 이해해야만 수험생이 문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르게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 되어왔다. 다시 말해, 한국의 사회구조는 한국인이나 한국에서 오래 생활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이런 사회구조를 알 수 없는 수험생에게 한국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적절한 답을 하기가 힘들다.<sup>10)</sup>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 문제를 보며 설명해보기로 하자. 예 (4)는 2013년 32회 44번 질문으로 대학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4)

[44] 여러분은 대학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학문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역할>  
(1)대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대학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대학의 역할은 순수하게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는 지성인을 육성하는 상아탑으로, 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요구하는 대학의 기능은 취업의 전 단계로서의 직업학교로 전락하였다. IMF 이후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학이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더 나아가 졸업생 취업률이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sup>11)</sup>

등을 들 수 있다.

10) 김광일(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고급단계로 올라갈수록 한국인 교포집단의 합격률이 높아지는 이유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와 함께 생활해 본 경험으로 인해, 한국 문화, 사회구조를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70% 이상의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인다. 한국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통과 의례로 인식되는 이유는 학벌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맥을 구성하여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성공에 대한 수단으로서 대학에 가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이나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40% 정도의 낮은 대학 진학률을 보인다. 만일 독일이나 스위스 출신의 수험자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왜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곳’이 대학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다.

다음 예 (5)에서는 2000년4회 56번 질문으로 자동차산업에 관한 문제이다.

(5)

어떤 사람은 사물을 관찰하거나 평가할 때 그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부정적인 면만 보려고 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보자.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수출도 하지만 내수도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막대한 외화로 들어오는 기쁨을 아까운 줄 모르고 소비한다. 독한 매연을 정진없이 뿜어 낸다. 게다가 자동차 사고는 끊임없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낸다. 낭비 풍조를 부추기는 면도 없지 않다. 이것은 부정적인 면이다.

---

이처럼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즉,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어느 면이 더 비중이 큰가 하는 것은 별도로 고려할 문제이다.

[56] 아래의 단어를 사용하여 윗글의 셋째 단락을 쓰시오.

관련 산업에 미치는 연관 효과, 외화 획득, 국민 생활의 편리성 정도

11) 1997년 11월 외환위기로 인해 IMF로부터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받으면서, 한국의 경제구조는 많은 변화를 겪는데, 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살아남은 기업도 30~50%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IMF이후 기업들은 인력 운영을 대폭 축소하면서, 지금의 취업난이 고착화 되었다. 신입사원의 채용이 줄고 경력직채용이 증가하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국가의 대학정책도 변화하였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평가를 통한 차등 재정지원 정책으로 국가보조금은 대학서열에 따라 차등지급 하고,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40.4%나 되었다. 차등지원정책의 기준이 되는 대학평가지표는 취업률, 산학협력지표에 따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재정지원의 여부를 넘어 대학의 존폐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현재까지도 대학교는 더 이상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률에 의해 평가됨으로써 취업의 도구화가 되어버렸다.

위 문제는 지금의 한국경제와는 달리 개발도상국가로서 경제개발을 위해 산업발전에 주력했던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쓰인 내용이다. 수출 주력 산업의 하나였던 자동차 산업은 외화벌이의 큰 역할을 하며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였지만, 내수 측면에서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은 한국에서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 막대한 외화를 지출해야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이야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국의 경제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현재 자동차는 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젊은 세대에게는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많은 수입 자동차와의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동차를 더 이상 낭비 풍조의 한 원인으로 보지 않을 뿐더러, 외화획득의 수단으로만 여길 수도 없다. 이는 위의 예 (5)에서 말하는 가치관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자동차가 이미 생활필수품이 되어 버린 국가들이나,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제기되기 어려운 주제의 문제이고, 한국과 다른 경제구조, 사회구조를 가진 나라 출신의 수험생에게는 이해하기도, 공감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예 (6) 1998년 2회 쓰기 문제 중 하나로 “청소년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주제가 있다.

(6)

‘청소년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오. 아래의 내용은 청소년 교육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가 갖는 책임 또는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들로서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	학교의 책임	사회의 책임
=청소년이 속한 제1차 집단으로서의 가정 - 부모의 애정이 갖는 힘 -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	=교육 기관(학교) 설립의 근본 취지 - 여러 이론과 경험의 활용 - 교사의 권위와 힘	=청소년 교육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 - 대중 매체의 역할 - 학교 주변 교육 환경 조성

이 문제는 청소년 문제를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가정, 학교, 사회라는 세

범주를 제시하고, 각각의 범주와 관련된 근거를 3개씩 제시하고 있다. 제시어에 나타난 교사의 권위와 힘, 청소년 교육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 학교 주변 교육환경조성 등은 한국의 사회구조와 환경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조명하지 않고, 청소년이 속한 사회 집단과 그 환경에서 찾으려고 함을 보여준다. 이유는 전통적 한국사회에서 교사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교사와 부모는 전적으로 학생과 자녀교육의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선생님과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배우고 자라며, 청소년은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정, 사회, 학교에 의해서 형성되는 수동적 대상으로 여겨진다. 한국과는 다르게 청소년 교육에서 청소년 개인의 성격, 의지, 목표 의식, 동기화 등의 개인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청소년 개인의 책임이 전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나라의 수험생에게는 이러한 제시어가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될 것이다.

### 3) 집단적 가치 추구 문제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집단으로서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구성원들 모두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하고, 미래 한국사회의 근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반복 학습시키면서 시험에 자주 출제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추구하는 자신의 가치나 목표보다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할 집단적 가치, 목표가 무의식적으로 실현되게 함으로써 한국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문제에서도 이러한 한국사회의 집단적 가치를 학습시키는 문제가 출제되어 왔다. 예를 들면, ‘올바른 과학기술’(7회), ‘올바른 사과 방법’(10회), ‘올바른 인터넷 사용의 태도’(14회) 등에 대한 글을 쓰도록 요구하는 문제에서 ‘올바른’이라는 표현과 ‘바람직한 신문의 기능’(17회)이나 ‘바람직한 인간관계’(23회) 등과 같은 문제에서는 ‘바람직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올바르다’는 ‘말이나 생각, 행동 따위가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이 옳고 바르다’라고 되어있고, ‘바람직하다’는 ‘바랄만한 가치가 있다’이다. 여기서 올바르게나 바람직해야 할 대

상이 암시적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그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개인이 속한 집단을 가리킨다. 즉, 이러한 문제는 집단의 일원으로써,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것을 개인이 따르고 성취해야 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올바른’이나 ‘바람직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시키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관점은, 올바르고, 바람직한 것은 맞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관점이 전제되어있는, 집단주의적인 한국 사회문화적 경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보여주는 이런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을 암시하는 문제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에 익숙하지 못한, 개인주의 배경을 가진 외국인 수험생의 경우 한국어능력과 관계없이 ‘올바른’ 또는 ‘바람직한’ 내용의 보편적인 가치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할 수 있다.

#### 4) 동양적 세계관

한국어능력시험의 고급 쓰기 문제에서는 하나의 입장을 취하기보다 장점과 단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관점을 함께 다루고 있는 문제가 많다. 총 34회(2회부터 35회)의 문제 중에서 10회에 걸쳐 서로 다른 관점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의 장 단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다루는 문제들의 예로는 6회 생산적 유머 vs. 냉소적 유머, 7회 과학기술의 방향, 8회 주5일 근무, 20회 통계자료의 양면성, 27회 현대사회에서의 경쟁 등이 있고, 개인적,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다루는 문제의 예로 11회 나눔의 필요성, 18회 자기계발의 필요성 등이 있다.

Nisbett(2004)에 의하면 동양인들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서양인은 개체 중심의 분석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동양인에게 세계는 개체들의 상호관계성으로 맺어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사건 또는 상황이든 종합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반면, 서양인은 세계의 구성체로서 개체의 속성을 분석하여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사건 또는 상황이든 참여 개체를 중심으로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기술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 예 (7)는 2010년 18회 45번 질문으로 자기 계발의 필요성을 사회적, 개인적 가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계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구성원 개체에 더 관심을 두는 분석적 관점을 가진 서양사고로 볼 때에 자기 계발은 곧 개인적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 왜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 사물을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영어권 수험생에게는 특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45] 다음 글을 읽고 ‘자기 계발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한 두 차원의 가치 중 각각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쓰되,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기 계발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 개인차원: 소질 발견 및 계발/ 자기 가치 증대/ 삶의 질 향상 사회 차원: 우수한 인재 발굴 및 계발/ 업무 성과 증대/ 직무 만족도 향상
---

##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 1) 내용적인 측면

한국어능력시험이 처음 시행된 이후 18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한국어능력시험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내용적으로는 회가 거듭될수록 가치관이 변화됨을 보이고 있다. 3.1에서 다루었던 시의성, 한국사회의 특징, 집단주의적 사고방식 등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관련 문제의 모범답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9년 3회 ‘직업관’에서는 직업을 선택하는 주된 요인으로, 일에 대한 자기만족과 더불어 개인의 사회적 공헌이나 기여 측면 또한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2014년 33회 문제 ‘의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조건’이라는 주제에서는 본인의 적성이 더 중요하다고 모범답안에서 기술하고 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사회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시험문제에 반영된 것이 흥미롭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아래 예 (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 (8)는 1999년 3회 56번 문제이고, 예 (9)는 2014년 33회 44번에서 출제된 직업선택의 조건에 대한 기출문제의 모범답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8)

[56] 오늘날 직업에 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 하나는 여러 방면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거나, 공헌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대가로 자신과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에 대한 봉사나 공헌보다 일에 대한 자기만족과 욕구 충족, 충분한 대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우이다. ...중략... 후자의 경우에는 생동감은 있으나 급격한 변화로 안정감을 잃어버릴 위험이 많고, 이런 변화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은 사회 변화의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

(9)

[44]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 선택 시 중요시하는 조건도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들 고려해 보는 조건들이 있는데, 보통 가장 먼저 고려해 보는 조건 중 하나가 개인의 적성이나 취향, 가치관 등과 관계된 부분이다. ...중략.....

이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만을 골라야 한다면 아무래도 적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발전 가능성이 떨어지는 직업을 선택해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는 직업을 선택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그런 문제는 모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에 항상 접해야 한다. 직업이란 단순한 일을 넘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런 내적 갈등을 항상 느끼며 사는 것은 무척 괴로울 것이다. 반면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경제적으로 다소 불안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해도 자신의 직업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후략...

이처럼 회를 거듭할수록 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어능력시험이 한국 사회가 겪어온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쓰기 문제도 한국적 편향성에서 벗어나려는 긍정적 측면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 2) 형식적인 측면

한국어능력시험 고급단계 쓰기 문제들의 출제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회를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되었던, 수험자의 창의력과 한국어 쓰기 능력 발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읽기 지문과 제시어, 제시문이 사라지고, 수험생이 순수하게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여 의견을 피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1998년 2회부터~2014년 35회까지, 총 34회 문제 중에서 한국어능력시험 문제유형의 변화를 보면 9차례에 걸쳐서 서론 또는 결론형식의 읽기 지문을 제공하고, 본론 또는 본론의 일부를 전후 맥락에 맞게 쓰도록 요구하였고, 그 중 6차례(3회~7회, 10회)는 읽기 지문과 제시어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제시된 읽기지문의 본론 부분을 빈칸으로 비워놓고, 주어진 제시어를 이용하여 글을 완성 하도록 유도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리고 총 16차례에 걸쳐서 주어진 제시어를 선택하여 글을 완성하기(2회~7회, 9회~10회, 12회~15회, 17회~19회, 21회 등), 15차례에 걸쳐서 주어진 제시문장(8회, 20회, 22회~34회 등)에 따라 작문하기 등의 문제가 출제 되었다.

이렇게 수험생이 완성해야 할 문단의 서론과 결론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글을 전개해야 하는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수험생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전개 할 수 없고 출제자의 의도대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시어나 제시문을 줌으로써 수험생의 창의적인 생각 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예 (10)는 2001년 5회 55번 문제로 마약을 합법화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쓰라는 것이다. 기출 문제에서 보면 수험생이 마약 합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반대 입장에서 글을 쓸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그 근거로 청소년의 마약 복용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라는 지시어가 주어졌다. 제시문과 제시어란 일정한 방향으로 글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내용을 유도하게 만든다.

(10) 다음 글을 읽고 아래에 제시된 근거를 사용해서 글을 완성하십시오.

<p>몇 해 전부터 일부 국가에서는 차라리 일부 마약을 담배나 술처럼 정식으로 판매하자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불법 밀거래와 그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 의학적으로 규명된 마약이라면 차라리 합법화하는 것이 사회적 악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규명된 마약이라면 차라리 합법화하는 것이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마약의 합법화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마약이 합법화되면</p> <hr/> <p>이렇게 강경한 반대 속에서 ‘마약의 합법화’ 주장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p>
--

<근거>

청소년 마약 복용 / 육체적, 정신적 건강
-------------------------

이러한 형식의 문제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시 글과 제시어가 사라지고, 온전히 수험생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문제들로 변화하고 있다. 예로 28회 44번 문제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정의, 필요성, 문제점에 대해 글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수험생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험생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어 쓰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형식이 자주 출제되는 것은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능력시험 작문형 쓰기 문제가 외국어로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한국어실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문제인지를 분

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8년 2회부터 2014년 35회까지 총 34회의 한국어능력시험 6급의 작문형 쓰기 문제를 분석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외국어로 글을 쓸 때, 주제가 수험생에게 익숙한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쓰기 영역에서, 한국의 사회의 시의성을 반영한 문제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배경을 전제로 한 문제들, 집단주의 한국문화와 동양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고급쓰기 문제들의 출제 경향의 변화 또한 분석해 보았다.

각각의 사회는 그 사회만이 가지는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징이 있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수험생들에게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사회문화 현상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런 선행경험이 없는 주제를 전제로 출제된 쓰기문제는 외국인 수험생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정해진 분량의 글을 제대로 쓰기가 어렵다는 건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김광일(2012)에서도 고급단계로 올라갈수록 한국인 교포집단의 합격률이 높아지는 이유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잦은 접촉결과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한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에서, 개인이 가진 배경지식이 작문형 쓰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어 쓰기 문제 유형으로서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문제는 한국어 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어야지, 한국어 쓰기능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문화 구조 등 전반적인 지식을 동시에 요구하는 시험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여겨진다. 한국의 사회 문화전반에 걸친 지식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으로 TOEFL이나 IELTS 시험에서 측정하는 것과 같이 읽거나 듣기 지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어 쓰기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고, 그들의 쓰기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전제로 한 문제는 배제해야 한다. 또한, 수험생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형식이어야 한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어떤 특정 사회나 문화의 편향성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창의적인 자신의 생

각을 표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수험생의 글에 대한 평가 또한 특정 사회나 문화, 주장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행스럽게도,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어능력시험도 긍정적인 변화의 노력을 보여 왔다. 3.2에서 밝힌 것처럼, 형식적인 면에서 수험생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도록, 읽기 지문의 일부를 비워두고 지시에 따라 글을 쓰는 문제, 주어진 제시문이나 제시어에 맞추어 글을 쓰라는 유형의 문제들의 출제가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의 외국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42개국 226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수험생의 한국어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지 한국에 관한 배경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불문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그 실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문제가 출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전 세계의 많은 수험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와 모범답안을 참고하여 공부하는 만큼, 한국 사회나 문화에 편향되지 않은 모범답안을 작성하여 올리도록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한국 사회, 문화, 구조에 관한 배경지식을 담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쓰기 문제들이 외국인 수험생들에게 한국어 실력 발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리라 예상하고, 분석하였으면서도, 외국인 수험생이 작성한 글의 평가 결과가 공개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검증은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Langer(1986)가 말한 것처럼, 같은 사람이라도 친숙하지 못한 주제보다 친숙한 주제에 대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만약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었다면, Ruth & Murphy(1988)의 이론대로, 친숙하지 못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한국어 쓰기 문제가 외국인 수험생들의 한국어 쓰기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끼쳤는지, 그리고 그 글에 대해 과연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쓰기 문제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것까지 분석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아쉬움은 TOEFL 이나 IELTS에서 제시된 쓰기문항의 질문과 모범답안들을 한국어능력시험과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하여 보지 못한 점이다. 이런 비교와 분석을 통해 두 언어의 능력시험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차이점은 한국어능력시험의 발전적 변화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쉬움은 후속 연구를 위해 남겨둔다.

## ❖ 참 고 문 헌

- 김광일. 2012.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분석을 통한 언어권별 교수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경. 2013.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평가 과제 구성 요소 분석」. 새국어교육 제94호.
- 김은희. 2013.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쓰기 지도 방안」. 국어교과교육 연구 제21호.
- 김태은. 2008.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의 문항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2013. 「토픽(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의 지도 방안: 중급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제41집.
- 송아라. 2014.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의 현황 및 전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현. 2012.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구인타당도 개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41
- 양길석·민경석·박정진. 2012. 『한국어능력시험의 구인 타당도 분석』, 국립국제교육원 논집.
- 이영옥. 2013. 「학문 목적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문항의 개발 방향 모색」. 새국어교육 97.
- 이인희. 2009.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평가에 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ROWN, H. Douglas.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Second 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2001.
- BROWN, H. Douglas. Language Assessment: Principles and Classroom Practices, Pearson Education, Inc., 2004.
- HALL, Edward. 1976. Beyond Culture. NY: Anchor Books.
- LANGER, J. A., Reading and Writing Instruction: Toward a Theory of Teaching and Learning.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Vol.13, pp171-194, 1986
- NISBETT, E. R. The Geography of Thought. Free Press, 2003.
- RUTH, L. & S. Murphy. Designing writing tasks for the assessment of writing.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88.
- VALETTE, R. M. Modern language testing,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7.



## ABSTRACT

## A Study on High-Level Essay Writing Questions in TOPIK

Kim, sun 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ether high-level(level 6) essay-writing questions in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have been presented appropriately so as to enable foreign test-takers to display their Korean writing ability properly, an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on how those questions need to be changed. To accomplish this purpose, all the essay-writing questions were collected from the 33 TOPIK tests, from the 2nd in 1998 to the 35th in 2014, and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ir topics and formats. The results are that high-level TOPIK essay-writing questions showed a strong tendency to take as their topics Korean sociocultural structures and phenomena, or current issues in Korea, and that they frequently employed guided writing formats by providing preset ideas or/and contexts for test-takers to write in a guided way; such tendencies were analyzed to shed a negative influence on test-takers displaying their writing ability and creativity, because those topics and preset ideas or contexts provided do not allow them to express their own opinions or positions freely. It is suggested that TOPIK essay-writing questions should be changed to deal with objective and general topics which enable test-takers to write freely and logically in Korean based on their experience, because TOPIK is not a test to check whether they have enough background knowledge about the Korean society and culture, but a test to assess their Korean proficiency.

## Key Words

한국어능력시험, 사회언어학, 작문형쓰기문제, 평가타당도, 사회문화적 배경지식  
TOPIK, Essay writing test, TOEFL, IELTS, Sociolinguistics

360 비교문화연구 제37집 (2014. 12.)

논문접수일: 2014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6일